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옳다 하느니라” ‘출산 직전까지’ 낙태 허용? 관련 개정안 논란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법을 도입할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노동당 의원들이 낙태를 사실상 출산 직전까지 합법화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현재 낙태가 임신 24주까지 합법적으로 허용되며, 대부분의 낙태가 이 시점 이전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낙태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전쟁의 중심에 있는 나라와 달리,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왔다. 물론 이 합의는 소수의 생명 보호론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치(Tonia Antoniazzi) 의원과 스텔라 크리스시(Stella Creasy) 의원은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는 형사 및 경찰법(Crime and Policing Bill)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직 보수당 의원이자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미리암 케이트(Miriam Cates)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기고에서 “영국 내에서 1%만이 출산 직전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70%의 의원들은 ‘24주 이후 불법 낙태를 시도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케이트 전 의원은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자가낙태’(DIY abortion)가 급증한 것도 지적했다. 당시 여성들은 의사와의 대면 상담 없이 전화로 약물 처방을 받아 낙태를 시도할 수 있었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하나는 임신 8개월 된 여성이 전화 상담에서 임신 7주라고 주장하고 낙태한 사례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낙태 약물을 구매해 임신 중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몰래 먹였고, 결과적으로 그 여성은 불임이 됐다. 자가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약 1만 명의 여성이 집에서 낙태 약물을 복용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케이트 전 의원은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낙태를 강요받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의학적인 합병증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인권이 존중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라면, 이미 완전히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것에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출산 직후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의원들은 소수 극단주의 활동가들의 집착 때문에 법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의원들 편에 서 있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21,32)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뱃속에 잉태된 아이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인하는 것을 비범죄화 하려는 영국의 악한 시도를 꾸짖어 주시고 악법을 막아주소서.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주를 반역하기에 두렵지 않은 인생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소서. 그리하여 분명한 죄악을 옳다 말하던 교만이 복음 앞에 꺾어지고, 영국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아프간, 지뢰·불발탄으로 138명 사망

아프가니스탄에서 올해 지뢰와 불발탄 폭발로 130명 넘게 숨졌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프간 국가재난관리청은 올해 지뢰와 불발탄으로 어린이 90명을 포함 138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며 지난 8일에도 아프간 동부 팍티아주에서 불발탄 폭발로 12살 어린이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누르딘 루스탐카일 아프간 지뢰행동조정국(DMAC) 국장은 “아프간 전역에 지뢰와 불발탄으로 가득해 약 317만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 전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지뢰 퇴치 운동 재단 할로 트러스트(HALO Trust)도 아프간은 세계에서 불발탄으로 심하게 오염된 국가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은 아프간에서 1989년 이후 지뢰를 포함한 폭발물로 민간인 5만 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재집권하며 그 해에만 1,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시편 33:22)

하나님,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지뢰와 불발탄이 퍼져있는 아프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민간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생사를 오가는 이 일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없이 그저 국민들을 향해 강한 압제만을 가하는 탈레반 독재정권이 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이 땅이 잊히지 않도록 몸 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계시 되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얻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 에콰도르 정부, 피의자 석방 법관 자산 증식 과정 조사

에콰도르 정부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법관을 대상으로 자산 증식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배포한 자료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무부와 금융당국이 범죄자에게 자유를 허용해 온 지난 수년간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관의 자산 증식 과정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살인이나 유괴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자유’를 부여한 판사와 검사, 그리고 그 가족 및 측근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의 자산 증식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법관이 뒤통을 받고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해 준다”는 사회 각계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범죄 피의자를 경찰이 10차례나 반복해 체포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며 “이제 이런 상황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시편 106:3,5)

하나님, 법관과 범죄자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에콰도르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려는 위정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잃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여러 번 선포할 만큼 마약과 갱단들의 강력 범죄가 만연한 어둡고 혼탁한 이 땅에 에콰도르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더욱 외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로 구원을 얻으며 그 영혼의 형통함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변화를 기대하는 이란인들, 이스라엘 공습에 “미래의 자유 위한 대가라면 감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이란 시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환호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페이스와이어가 18일 보도했다. 일부 젊은이들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며 파티를 열거나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기독교 사역 단체 트랜스포 이란(Transform Iran)의 라나 실크(Lana Silk)는 “놀라운 일이지만, 현재 이란의 억압적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실크는 “이란 내부에서 처음 들려온 반응은 말 그대로 ‘축하’였다”며 “젊은이들이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며 실제로 파티를 열고 있다는 영상들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 잔혹한 정권에 대해 마침내 무언가를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공습에 따른 식량과 연료 부족, 대피 등 현실적인 고통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란 시민들은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자유를 위한 대가라면 감수할 만하다”는 분위기라고 실크는 전했다.

그녀는 이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억압적인 이슬람 정권의 통제 속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받으며 살아왔고, 이에 따른 사회적 트라우마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들은 히잡 착용 문제를 두고 거리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되거나 구타당하기도 했고,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박탈된 상태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단순한 대리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군사 대응으로 전환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실크는 “중동 전체가 이 상황을 긴장감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트랜스포 이란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고, 이란이 개방되어 종교적 제약이 완화될 경우 복음을 더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왔다. 실크는 “교회가 자유로워질 날을 대비해, 제자훈련 프로그램, 교회 조직, 지역별 신자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 내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비밀리에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크는 “이제야 비로소 오랫동안 기도해온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지혜를 갖도록, 양국의 무고한 이들을 위한 평화와 보호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린도 전서 1:18,21)

하나님,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보복 공격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때에 놀라운 반응으로 자유를 향한 갈망을 드러내는 이란을 돌봐주십시오. 주여, 민간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종교적 명목을 앞세워 오랜 시간 국내외적으로 포악과 횡포를 일삼은 이슬람 정권과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권세가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는 단체들과 교회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이란에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어 주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케 하소서.

▲ 인도 차티스가르 기독교인 결혼식, 힌두 극단주의자들에 폭력 공격당해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 주 라이푸르 지역의 한 마을에서 지난 11일, 기독교인 결혼식이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적인 습격을 받아 다수의 부상자와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이 전했다. 지역 목회자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이날, 갑작스런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가족들은 집 안에 몸을 피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날 폭도들이 집 문을 부술 때, 신랑과 신부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피신했다. 폭도들은 또 피해자측의 SUV 차량 타이어에 휘발유를 붓고 방화를 시도했으며, 여러 대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파손했다. 피해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의 아버지는 결혼식 남은 음식 재료를 반납하기 위해 마을을 찾았다가 전날 폭도 중 일부로 보이는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차티스가르에서 기독교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정부는 침묵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기독교인의 권리가 공공연히 짓밟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시편 59:2,16)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향한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공격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차티스가르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경찰과 인도 정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 예배하는 인도 영혼들 되게 하소서.

▲ 예멘, 정부 통제 지역 주민 절반이 식량 위기

예멘 정부 통제 지역 주민 수백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 속에 놓여 있다고 국제인권사이트 릴리프웹이 17일 전했다. 국제식량안보단계분류(IPC)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8월 사이 예멘 정부 통제 지역에서 약 495만 명이 IPC 3단계(위기) 이상의 급성 식량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분석 대상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에서도 약 150만 명은 IPC 4단계(비상) 수준, 나머지 340만 명은 IPC 3단계(위기)로 분류됐다. IPC는 식량 접근성과 영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5단계로 구분하는 국제 표준 지표다.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은 오랜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경제 붕괴, 그리고 식량연료 가격 상승, 홍수 가능성, 파종 지연, 긴급 식량 및 생계 지원의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목된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역대하 20:9)

하나님, 정부 통제 지역의 심각한 식량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예멘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식량 지급이 가장 시급하고 취약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10년째 내전 중인 예멘에 휴전이 찾아왔지만, 후티 반군과 극단주의 단체들의 기승이 여전한함으로 인해 이 땅의 주민들이 낙심치 않도록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환난 가운데 놓인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멘에 속히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 증가로 교회들 불안에 휩싸여



아랍의 봄을 이끌었던 튀니지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2014년에 평화로운 선거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하지만 2021년 7월에 집권한 사이드(Kais Saied) 대통령은 튀니지 정부 당국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체제 인사로 규정하고, 형법과 통신법, 대테러법, 사이버 보안법 등을 근거로 체포와 구금을 강화해 오고 있다.

4월 16일에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튀니지 정부가 자의적 구금을 억압 정책의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공개 발언이나 정치 활동과 관련한 혐의로 구금된 22명

의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 명단에는 변호사, 야당 인사, 언론인, 소셜 미디어 사용자, 인권 활동가들이 포함됐고, 이들 중 14명 이상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까지 처해질 위험에 놓여 있다. 2025년 1월까지 50명 이상이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었고, 4월 초에도 튀니지 법원은 40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러한 탄압과 사회적 불안 증가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튀니지개혁신교회(Eglise Réformée de Tunisie)는 약 120명의 교인이 주일마다 모이는데,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면서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줄고 있다. 교인 중 상당수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경우가 많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주하여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정착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튀니지 당국은 2023년에 1,200명의 흑인을 붙잡아 리비아 국경으로 추방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튀니지 교인들은 자칫 신앙적 표현이나 종교 활동이 반체제 범죄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튀니지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인구가 약 99%이다. 이슬람이 공식 국교이며 헌법에 대통령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제도적 제약과 관습적인 차별이 현실로 존재한다. 오픈도어선 교회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 따르면, 전체 50개국 중에서 튀니지는 70점(매우 높은 박해 수준)을 기록하며 34위에 올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기도24·365본부 종합).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1:21)

하나님, 튀니지 사회가 정부의 억압 정책으로 불안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성도들 역시 불안에 휩싸여 교회를 찾는 걸음마저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다시 찾아온 어려움 앞에 두렵고 낙심되는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사 이때 더욱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둔 굳건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권세를 부리는 위정자들을 엄히 책망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국민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간구 하게 하소서.

▲ 미국 영국 젊은 남성층, 낙태 반대율 높아

미국과 영국의 젊은 남성층 사이에서 낙태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라이프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명확하게 '생명 보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54%는 자신을 '생명 보호자'라고 밝혔으며 여성은 32%만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반면 낙태를 지지하는 비율은 여성 61%, 남성 41%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최근 조사에서는, 16-34세 남성 중 46%가 대부분 혹은 모든 경우에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인 7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연령대 남성의 3분의 1 이상은 낙태가 대부분 혹은 모든 경우에 불법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고령 남성층과의 인식 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55-75세 남성의 80%, 35-54세 남성의 75%는 낙태 합법화를 지지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

하나님, 낙태를 거부하며 자신을 생명 보호자라고 밝힌 영국과 미국의 젊은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놀랍고 반가운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보호하며 존귀히 여기는 모두의 마음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터가 될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더욱 힘써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하소서. 또한 낙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간구가 올려져 주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이들을 통해 온 땅에 사랑과 화평,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 전 세계 무력 분쟁 사망자 4만 8,384명...40% 증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전 세계 무력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력 분쟁으로 최소 4만 8,384명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민간인으로 집계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우리가 마주하는 숫자 하나하나를 누군가의 삶이자 고통의 기록"이라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인에 대한 폭력도 증가했다. 지난해 언론인 사망자는 82명으로 2023년 74명에서 약 10% 늘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분쟁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인권운동가 625명이 살해(402명)되거나 실종(123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읍살라대의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UCDP)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무력 분쟁 건수는 총 61건으로,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시편 46:1,9)

하나님, 전 세계에서 나라 간, 세력 간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더 증가하여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끝없는 탐심과 정욕이 서로를 향해 죽이는 독과 화살이 되어 폭력과 분쟁이 멈추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가 속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열방 중에 나타내시고, 환난 중에 만나주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께 돌아온 예수 생명으로 인해 모든 전쟁을 끝내실 주님을 신뢰합니다.